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Summer

2017 VOL. 74



마음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공식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은 나누고 행복을 더해보세요.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홈페이지  
[www.kmdp.or.kr](http://www.kmdp.or.kr)



블로그  
[blog.naver.com/kmdp0311](http://blog.naver.com/kmdp0311)



페이스북  
[www.facebook.com/kmdp0311](http://www.facebook.com/kmdp0311)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mdp\\_official](http://www.instagram.com/kmdp_official)

##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원하신다면

①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남 · 여

② 신청장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5, 905호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

2 · 7호선 대림역 1번 출구 ☎ 02-737-5533

③ 접수시간 : 개인인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

단체인 경우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출장신청)

\* 방문 시 사전에 협회로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04 전문가 칼럼

KMDP와 함께한 20여 년

- 한마음혈액원 원장  
황유성

## 사랑을 나눕니다

### 06

잠시의 찝그림이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 기증자 정현준님

### 08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 기증자 임재학님

## 항상 고맙습니다

### 10

To my dearest Donor  
- Olivia Kim(가명)

### 12

당신 덕분에 또다시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 이영빈(가명)의 어머니

## 현장 STORY

### 14

제가 전할 수 있는 것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코디네이터 김희

### 16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2팀 코디네이터 배수현

### 18

KMDP 대학생 서포터즈 3기  
'원피스(One Piece)'

좋은 소식 전합니다

### 20

KMDP NEWS

### 22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 24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및 이식 실적

### 26

조혈모세포 2차(재발) 이식 및  
DLI 치료비 지원합니다

### 27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에서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28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29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 30

Q&A : 조혈모세포기증에 관한 모든 것!

### 31

개인정보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AL}입니다

2017 SUMMER Vol. 74

2017 여름 이야기(통권74호)

2017년 06월 16일 발행

발행인 민우성

편집인 이영화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5, 905호

TEL. 02-737-5533 FAX. 02-737-5336

E-mail : [kmdp@kmdp.or.kr](mailto:kmdp@kmdp.or.kr)

홈페이지 : [www.kmdp.or.kr](http://www.kmdp.or.kr)

# KMDP와 함께한 20여 년

황유성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획총보위원장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원장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orea Marrow Donor Program : KMDP)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5년 1월에 중앙적십자혈액원 혈액사업연구소에 발령받아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혈액원 맨 위층 낡은 방에는 '한국골수은행협회' 와 두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협회 회장이신 강영훈 적십자총재님과 부회장이신 김상인 적십자부총재님의 명을 받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의 예산 집행 시 KMDP와 긴밀한 협력을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기증희망자 검사예산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 오게 된 대한적십자사에서 오늘날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및 KONOS(장기이식관리센터)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골수기증희망자 선택 기준, HLA(Human Leukocyte Antigen) 검사기관 지정 및 정도 관리, HLA 검사결과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기증희망자 모집을 위해 전국 현혈의 집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군부대 등의 단체 기증자 모집을 수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협회가 필요로 했던 HLA 검색과 확인 검사, 이식조정 지침 등을 작성하기 위해 일본 JMDP(Japan Marrow Donor Program)의 업무지침서를 번역하여 자료로 삼고 국가적 비혈연 조혈모 세포 이식 체계 수립을 위해 WMDA(World Marrow Donor Association)의 가이드라인과 미국 NMDP(National Marrow Donor Program)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책 건의안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기증자 모집 예산을 만드는데 수훈을 세웠으나 예산 집행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타 단체의 방해로부터 협회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한 골수이식을 받으려는 환자의 분포와 골수이식 시술을 늘리려는 병원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의료진들의 이견을 적절히 조정해야 했으며 HLA 검사의 방법, 비용, 검사기관의 자격 등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과도기적인 솔루션을 도출해야 했습니다. 이후 협회의 많은 임·위원 분들의 노력과 준비

덕분에 1996년 성덕 바우만 군에게 골수를 공여할 수 있는 기증희망자를 찾아내었고 협회는 해당 공여 예정자를 적십자혈액원 의료진의 동행 보호하에 미국으로 보내 성공적으로 골수를 공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혈연 골수기증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자 대한적십자사는 이 사업을 협회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본연의 업무인 혈액사업에서도 전문성이 충분치 않음을 목도한 적십자 내부 의료진의 암묵적인 반대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골수이식에 관해 국민적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에 골수기증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주저하다 결국은 장기이식법에 한 줄이 들어가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제도에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 2월 이후 대한적십자사에서 관여하던 업무는 KONOS로 이관되었습니다. 초창기 KONOS는 장기이식법 안에 조혈모세포 기증자 검색, 이식조정, 국제협력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 협회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협회나 이식 의료기관들은 KONO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2005년에 골수기증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이식조정센터(National Coordinating Center)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식조정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방안이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의원실에서 추진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식조정비용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이식조정기관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KMDP는 아직 까지도 실적화보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유능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관회원, 의료기관, 의료진의 협력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한 금년을 기점으로 되돌아 보면 협회는 우리나라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했지만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협회 초창기의 치열했던 모색과 노력이 향후에도 줄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조혈모세포 이식의 특성에 맞는 단독법의 제정  
(제대혈 및 말초 포함)
2. 기증희망자 등록기관, HLA 검사기관, 채취기관, 조혈모세포은행, 이식조정기관, 이식실시기관, 국제협력기관 등의 지정과 관리를 제도화
3. 기증희망자 모집 시 HLA-C 검사의 추가로 이식조정기간 단축
4.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증희망자 모집 필요성 검토
5. 고해상도 HLA형별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증자 pool size 산정
6. IMD 검사종목 표준화 및 바이러스 핵산검사 실시방안
7. 이식조정 절차와 기준의 표준화
8. 이식조정비용의 효율성 제고와 이식조정료 현실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협회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협회와 20여 년을 함께해 온 저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다짐해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와 환자의 건강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방향으로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으겠습니다.

'정현준' 님은 2016년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기증자님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잠시의 찡그림이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기증자 정현준님(20대, 남)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성함하고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은 정현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강원도 속초 전차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장교로 임관하던 2012년에 혈액의 집에서  
현혈을 하고나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설명 듣고 기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셨던 점은 있나요?

드라마에서 골수 기증을 하면서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일치하시는 분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피를 나눈 친척도  
아닌데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기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위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전에 제가 부대 일정이 굉장히 바빠 '과연 내가  
기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조금 있었는데  
부대에 기증에 대해 보고를 하니 좋은 일이라며  
독려도 해주고 흔쾌히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들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기증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 육군 군인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그 어떤 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제 기증과정이 전부 끝나셨는데

기분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협회 관계자 분들 그리고 병원 간호사,  
의사 분들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편안한 분  
위기 속에서 기증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증을 진행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과 좋았던 점을 짚자면?

제가 사는 곳이 속초인데 속초에서 서울까지 왕복  
하면서 건강검진 및 기증을 하는 거리가 멀다 보니  
조금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었지만 협회 관계자 분  
들께서 워낙 잘 배려를 해주시고 일정을 맞춰주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증 이후에 삶에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기증 전에는 TV에 나오는 백혈병 등 여러 환자들을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환자들의 아픔을 조금  
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혜자 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혜자 분, 부족하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증을 망설이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증 과정을 잘 몰랐을 때는 두려움도 많았고 아픔에  
대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진행하며  
설명을 듣고 기증 절차를 확인하고 나니 아프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의 그 찡그림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으신 곳이 있나요?

바쁜 부대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증을 위해서  
흔쾌히 파견을 보내주신 우리 지휘관 분들 그리고  
우리 부대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임재학' 님은 2016년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기증자님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 임재학님(20대, 남)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성함하고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경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장원에  
거주하고 있는 임재학이라고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나요?

3년 전 학교 내에서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잠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게 된 김에 할 거면 끝까지 하자'라는 생각으로 채혈했습니다.

그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셨던 점은 있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골수세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엉덩이뼈에 주삿바늘을 꽂아 채취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었는데 조혈모세포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하며 설명 들다 보니 그들이 같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 일치하시는 분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3년 전에 신청하고 1년 뒤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증 동의를 했는데 환자 분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일치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증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저는 매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 이외에 다른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많이 없지만 이런 작은 참여로 사람 한 명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도 그중 하나라는 생각에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정말 조금의 고통만 참으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기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위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희 가족들은 반대는 없었습니다. 옛날 골수세포 기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아픈 과정을 생각하며 '기증 과정 중에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했는데 반대는 없었습니다.

기증을 진행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과 좋았던 점을 꼽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병원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증자 분들도 이런 점은 불편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기증 후의 보람입니다. 그것 하나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기증 이후에 삶에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해본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권유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일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수혜자 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이 아프다고 하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입원이고 몸에 칼도 대본 적 없습니다. 그런 저의 조혈모세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플 일 없이 평생 건강하실 것입니다.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증을 망설이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망설이는 사람들의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시간상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조혈모세포 기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혹은 인터넷에서 보았던 힘든 점들은 직접 경험해보니 거의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의 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믿기보다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경험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으신 곳이 있나요?

가족보다 주변 친구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놀지 못해 그럴 수도 있지만(웃음)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To my dearest Donor

수혜자 Olivia Kim(가명)

나의 친애하는 기증자님께.

기증자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이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주신  
기증자님의 친절함이 나의 생명을  
또한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기증자님의 기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고  
1년이 지나서야 서로 알게 될 테지만  
그때인 10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드네요.  
그때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몸속에는 똑같은 혈액이 흐르고 있고  
그 어떤 형제자매 사이나 모녀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내가 지금 기증자님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기증자님의 생일이 이맘때쯤이라는 것뿐이라  
생일 카드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정말 멋진 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너무 빠르거나 늦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조만간 기증자님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간 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증자님의 조혈모세포를 받은 이가.



수혜자 Olivia Kim(가명)의 원문 편지

March, 17, 2017.

To my dearest Donor,

Although I don't know who you are, your kindness to donate bone marrow to a stranger did save my life, also save my family.

Don't know how to say

THANK YOU! My family and I sincerely want to thanks for your donation!

We hope that after 1 year of transplataion of bone marrow, we can keep contact with one and other on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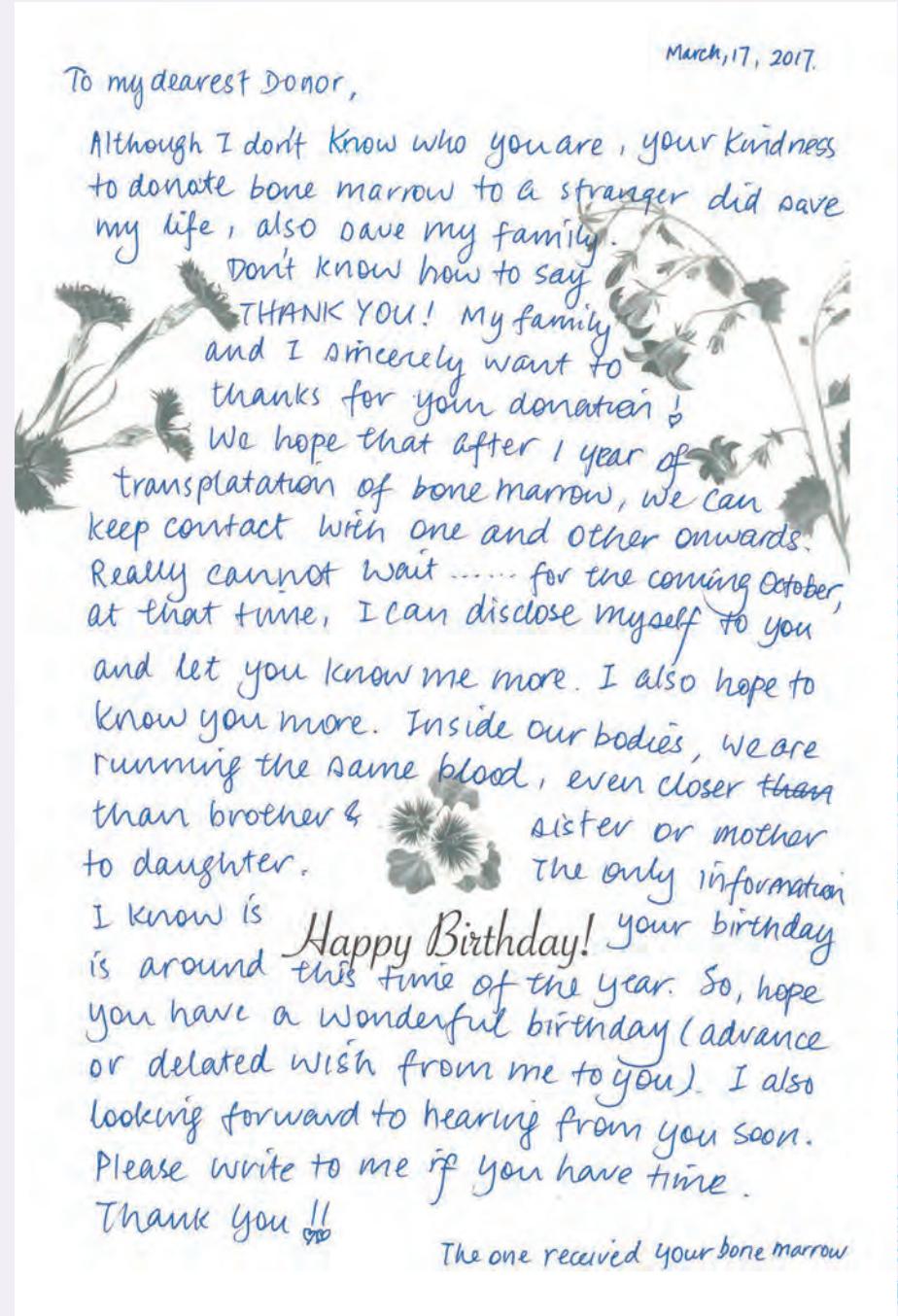
Really cannot wait ..... for the coming October, at that time, I can disclose myself to you

and let you know me more. I also hope to know you more. Inside our bodies, we are running the same blood, even closer than than brother & sister or mother to daughter.

I know is Happy Birthday! your birthday is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So, hope you have a wonderful birthday (advance or delated wish from me to you). I also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Please write to me if you have time.

Thank you !!

The one received your bone marrow



# 당신 덕분에 또다시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수혜자 이영빈(가명)의 어머니

공  
희

망

세상 그 어떤 말로 이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뭉클할 뿐입니다.  
제 나이 마흔여섯. 그동안 살아오며 남들에게 피해 준 일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도움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오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해주어야겠다고 절실히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누구신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평생, 아니 죽어서도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혹여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제 온 힘을 다해 갚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대로 해보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아이는 병을 얻을 때까지 온통 축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축구를 잘해  
학교에서 No.1으로 인정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기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지금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세상이 온통 장밋빛이었을 텐데  
한순간 그 모든 꿈들이 사라지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2년이 넘도록 지내왔습니다.  
1차 이식 후 치료가 잘 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발이 되고  
또다시 기나긴 고통의 터널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도 저도 절망이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번에는 정말 치료가 잘 되어서  
우리 아이가 맘껏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학교 졸업 후 글을 써본 적이 없어 다소 두서가 없는 점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수혜자 이영빈(가명)의 동생 편지

공여자님께

*Your smile completes my day!*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형의 동  
생입니다.  
정말 소중하신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니 감사  
합니다. 덕분에 형의 2차 이식수술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저희 형의 이식수술을 끝마치면 모두가 행복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몸 관리 잘하세요. 혹시나 영양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 모두가 이제 웃고, 기쁠 수 있게 될 것은  
단연코 공여자님 덕분입니다! 그렇 공여자님 가족들  
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n

2017년 2월 2일 화요일

- 동생 올림 -

# 제가 전할 수 있는 것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코디네이터 김희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혈액종양내과 조혈모세포이식 코디네이터 김희 간호사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코디네이터로서 일을 한 지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글을 낼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2년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임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종양이라고 하면 위, 대장 같은 고형암만 알았고 혈액과 관련된 지식은 현혈과 수혈밖에 몰랐습니다. 해운대백병원 조혈모세포이식 치료실에 근무할 때도 이식을 받는 순간이 수혈 받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학창시절 봉사라는 명목으로 현혈을 해도 현혈 후에 받는 상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KONOS(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기증등록도 신청하였지만 막상 나에게 연락이 오면 과연 흔들림 없이 기증 의사를 밝힐 수 있을지 또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나 결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환자와 사건을 뒤돌아보니 제가 이식 코디네이터가 되고 초반에 조혈모세포이식을 조정하였던 한 환자가 생각납니다. 20대 후반의 아기엄마였던 그분은 마치 드라마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방문한 인근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했더니 혈소판 수치가 낮았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아 해운대백병원에 오게 된 환자였습니다. 이후 그분은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부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권유받았습니다. 환자의 오빠와 언니가 유전자검사를 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70대인 먼 친척 어른도 기증을 할 수 없겠나며 물어볼 정도로 온 가족이 환자의 치료에 정성을 다하는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유전자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협회를 통한 비혈연 공여자로부터의 조혈모세포이식을 말씀드렸더니, “기증자 분께 따로 사례를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은 이식을 받는 순간까지 “기증하시는 분께 뭘 드려야 하나요?” 하고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기증자에게 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곁에 있는 교수님과 간호사, 그리고 저에게 수도 없이 표현해서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환자는 활동이 제한된 무균실에서 이식 전처치라는 항암제를 약 일주일간 투여받습니다. 마침 그때가 그분의 둘째 아이 돌 무렵이었습니다. 환자의 남편은 아기를 돌봐야 했고 환자는 면역이 저하된 상태라 면회가 자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신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가 아니라 환자분은 힘들 때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가족들 사진을 보며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여자를 찾아 이식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습니다.

이식을 받고 퇴원 후에도 매주 또는 격주 외래 진료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날마다의 혈액 검사 결과로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산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식 초기에는 숙주반응이 와서 입원도 여러 차례 했지만 다행히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고 그렇게 1달, 2달, 3달이 지나 1년, 2년, 3년이 되었습니다. 이식을 받을 무렵 돌이었던 아기는 벌써 유치원을 다닌다며 외래 올 때마다 아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본인의 성격이나 외모의 변화를 얘기하며 “혹시 제 기증자 분을닮아서 이럴까요?” 하고 웃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외래 진료 때 만나면 친구처럼 세상사 이야기도 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단순히 ‘이식’이라는 단어 그대로의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 희망을 잊지 않고 치료에 참여하는 환자와 가족들, 병원 의료진,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수 기증을 해주는 기증자와 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업무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받아와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불어 기증자의 마음도 정성스레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전달받고 미처 직접 전하지 못했던 환자와 가족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번 기회를 빌려 전합니다.

기증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노력이 혈액암과 백혈병으로  
아파하는 환자와, 기증으로 환자에게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기증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2팀 코디네이터 배수현

##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배수현입니다.

입사하기 전까지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말은 저와는 굉장히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기증희망 등록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지만 실제로 기증한 사례는 없었고, 골수기증은 굉장히 힘든 방법으로 진행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입사해 코디네이터로 일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증희망 등록을 하며 연간 300명이 넘는 분들이 실제로 기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또한 기증도 제가 막연히 알고 있던 ‘골수기증’이 아니라 성분 헌혈 하듯이 하는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광고판에 붙어 있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광고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구나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은 기증자와 통화하고 실제로 만나 기증을 돋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증 동의부터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기증 과정은 간단히 이루 어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특히 직장, 사업, 공부 등 개인 스케줄에 따라 일정을 내는 경우가 많아 시간 조정하기가 힘든데, 개인 휴가까지 써가며 흔쾌히 진행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장을 많이 다녀서 힘들겠어요”라며 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한 좋은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식조정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은 다양하고 많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기증이 시작되고 끝날 때 까지 기증자와 환자 사이에서 그들을 신경 쓰고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또 변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족 하지만 앞으로도 기증자와 환자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노력이 혈액암과 백혈병으로 아파하는 환자와 기증으로 환자에게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기증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 뵙고 기증까지 마친 분들 또 앞으로 저와 함께 기증을 해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 KMDP 대학생 서포터즈 3기 ‘원피스’



# One Piece

이번 서포터즈의 별칭은 ‘원피스(One Piece)’입니다!

어느 애니메이션의 보물과 같이 새 생명을 선물하는 소중한 조혈모세포이자 기적을 완성하는 한 조각, 기증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피스’는 단장 김상현(차의과학대, 보건복지정보학3), 부단장 진이랑(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2) 학생을 중심으로 간호학, 임상병리학, 의생명화학, 생명과학, 화학, 생명정보공학, 경영학, 국제의료경영학, 소방방재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19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MDP 대학생 서포터즈 3기 ‘원피스’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캠페인과 여러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아가 조혈모세포 기증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에서라도 KMDP 대학생 서포터즈 3기 ‘원피스’ 친구들을 만난다면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KMDP 대학생 서포터즈 3기

단장 : 김상현(차의과학대, 보건복지정보학3)      부단장 : 진이랑(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2)  
고은혜(계명대, 간호학3), 권수경(중부대, 간호학3), 김가현(전북대, 화학2), 김바울(충익대, 경영학4),  
김보라(건국대, 의생명화학3), 김종태(대구가톨릭대, 국제의료경영학4), 김주희(강원대, 간호학4),  
김혜성(고려대, 생명정보공학3), 박봉규(대구가톨릭대, 국제의료경영학4), 박성은(경동대, 임상병리학3),  
박수진(순천향대, 임상병리학4), 우효정(순천향대, 임상병리학4), 윤여포(가톨릭대, 생명과학3), 이고운(평택대, 간호학2),  
이보름(건양대, 임상병리학3), 임소현(대구한의대, 소방방재학1), 정성자(서울여자간호대, 간호학3)

협회공식블로그 : [blog.naver.com/kmdp0311](http://blog.naver.com/kmdp0311)을 통해 다른 서포터즈의 인사말도 만나보세요!



## “기적을 완성하는 한 조각(One Piece)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 서포터즈 3기 부단장 진이랑입니다. 3기 기수명은 ‘피로 하나 되는’이라는 의미를 담아 ‘원피스’라고 결정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서포터즈가 되어 영광이며 성실하게 끝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서포터즈의 주된 활동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혈모세포가 무엇인지 기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집으로 배달되는 소식지를 받는 날 빼고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이듬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명만 듣고도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헌혈이나 조혈모세포 기증에는 참여했지만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질병은 전혀 무지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이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속해서 이식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수많은 이식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조혈모세포 기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관여하고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을 비롯한 대부분의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혈액 성분을 만들어내는 엄마 세포인 조혈모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조직적합성항원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타입이 일치해야지만 이식과 기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끼리 이식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비혈연에게 이식을 받을 경우 ‘기증자의 동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증자의 건강상태, 변심 등으로 인해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일치하는 기증 희망자 중 8%는 연락이 닿지 않아 기증이 불가능하고 연락이 닿은 기증희망자 중 약 45%는 본인의 거부 혹은 가족의 반대로 기증이 무산됩니다. 기증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과 기증 과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포터즈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기증희망자의 거절로 인해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검사를 통해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고 거기에 기증자 분의 따뜻한 선의가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기증 과정에서도 병원 이식 코디네이터 분들의 노력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같은 매개 기관의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실제 이식이 시행되는 것은 한 해 500명 내외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증(이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적과 함께하는 서포터즈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피스’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더 많은 분들에게  
새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2017년 3월 26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학생 서포터즈 3기 '원피스(One Piece)'의 임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는 조혈모세포 인식 개선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끼와 재능이 넘치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KMDP 대학생 서포터즈 3기 '원피스'의 활동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KMDP 대학생 서포터즈 3기  
임명식 진행

2017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02** 2017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호텔리베라유성에서 진행된 '2017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국내의 우수한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치료방안들을 모색하여 난치성 소아혈액질환자들이 더욱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도 모든 환자분들이 완치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 제58차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사무국 춘계 체력단련

**03** 2017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된 '2017 제58차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국내의 우수한 석학들에 의해 혈액질환 관련 다양한 논점들이 오간 이 자리는 더 많은 분들의 난치성 질환이 극복되도록 하는 소중한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회에 참석한 많은 의료관계자 분들께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4** 2017년 4월 22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일대에서 춘계 체력단련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하여 겨우내 묵었던 답답함을 풀고 함께 단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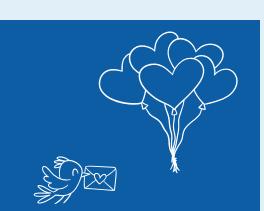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1월~5월 활동내용)









서울대 의과대 	푸르덴셜생명 	차의과학대 	마로니에공원 				
경일대 	한동대 	계명문화대 	경북대 	호신대 	대경대 	대구보건대 	경주대 
광주보건대 	안동과학대 	경북과학대 	경북보건대 	마로니에공원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동양대 	삼육대 				
우송대 	한국외대(글로벌) 	전남대 	대전보건대 	대전대 			
성균관대 	공주대 	인천가톨릭대 	성균관대 	협성대 	마로니에공원 	충북보건과학대 	신라대 

##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착한공모전' 한양대G.I.L, 삼육대 SOPA, 전남대 팔로팔로미, 성균관대 SCAN팀과 서울대 의과대학, 차의과학대RCY, 대구·경북지사 RCY(대구대, 수성대, 계명대, 경일대, 한동대, 계명문화대, 경북대, 호신대, 대경대, 경주대, 안동과학대, 경북과학대, 경북보건대,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동양대), 총청지역 로타렉트(우송대, 대전보건대, 대전대, 공주대), 광주보건대 호산나진료소, 인천가톨릭대, 충북보건과학대, 신라대 등 기쁨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신청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112)

Korea Marrow Donor Program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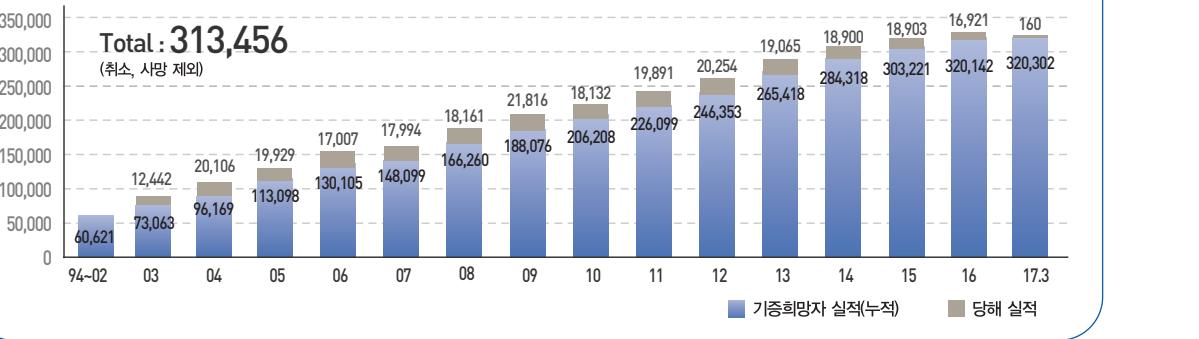
23

#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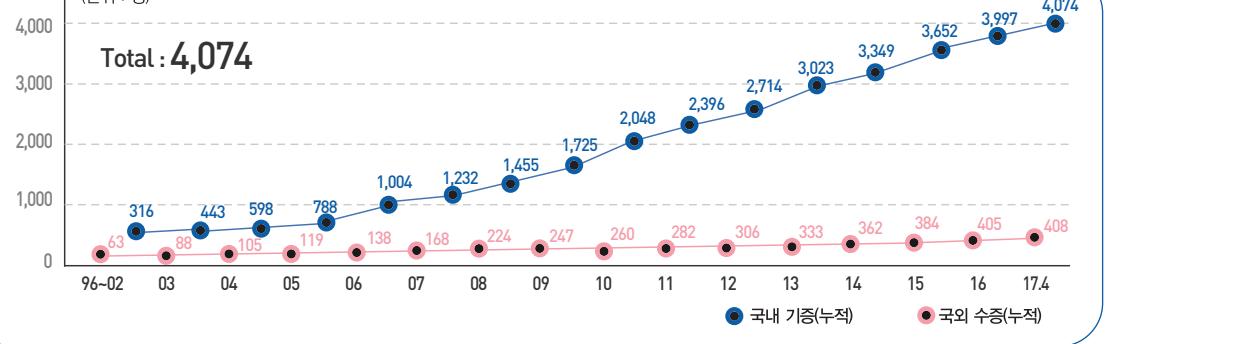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및 이식 실적

###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자료제공 : 장기이식관리센터 (단위 : 명)



###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 기증 제대혈 이식 현황



※ 상기 자료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한 실적임.

※ 제대혈은 2014. 10. 1부터 국내 일부공급을 중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함.



## 조혈모세포 2차(재발) 이식 및 DLI 치료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우리 협회를 통해 이식받은 후 재발하여 우리 협회를 통해 2차 이식 혹은 DLI를 시행하는 환자
- ♥ 지원금액 : 금 일백만원 정 (₩ 1,000,000)
-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 ※ 접수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5, 905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재발환자지원 담당자 앞
  - ※ 지원서 양식은 각 병원 혹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 ♥ 지원기간 : 2017년 연중 (심사 후 지급)
  - ※ 선발된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획홍보팀 02-737-5533 (내선 111)



‘징검다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분들의 모임  
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아직 ‘징검다리’에 가입  
하지 않았다면, 한번 가입해 보세요! 새 생명의 기쁨  
나눔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이야기의 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징검다리’는 기증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지역별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  
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에서는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 안내

매월(3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많은 기증자 여러분  
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페이스북 그룹(징검다리 – 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서울 · 경기 총무 이상수 010-8910-6427
- ▶ 대전 · 충청 총무 임재영 011-9421-5936
- ▶ 부산 · 울산 · 경남 총무 이호영 010-8889-5723

페이스북 그룹([www.facebook.com/groups/1605998819677212/](http://www.facebook.com/groups/1605998819677212/))  
‘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을 통해 기증자 동호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에 관한 모든 것!

##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 Q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하려면 헌혈 경험이 있어야 하나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헌혈 경험에 관하여 따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증 등록 후 확실히 기증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하기 위해 신체 건강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Q 기증 후 언제부터 학교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나요?

기증 후 통증이나 불쾌감 등 자각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바로 학교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취 후 1주일 정도는 채취 부위를 청결히 유지하고 과격한 운동은 삼가바랍니다. 조혈모세포는 2~4주 내에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 Q 조혈모세포 채취(기증) 시에 얼마나 아픈가요?

조혈모세포 채취방법은 성분헌혈 방식인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집방법과 골반 뼈에서 채취하는 골수 채취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증자의 경우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집방법을 통한 기증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취방법은 헌혈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통증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채취시간이 3~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채집 부위에 뼈근한 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채취 다음날 퇴원하며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는 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조혈모세포(골수)를 채취하므로, 맘스컴에서 보도되는 백혈병 환자의 통증과 기증자의 골수채취 통증은 서로 다릅니다.



## 개인정보 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 주소와 연락처가

#### 바뀐 경우

#### 꼭 변경해 주세요!



기증희망 등록 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주소,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HLA)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답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꼭 변경해 주세요. (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 등록자만 정보수정 가능)

-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 [www.kmdp.or.kr](http://www.kmdp.or.kr)  
접속 → 개인정보변경 신청 클릭 → 변경내용  
기재 → 확인
- 전화로 변경하기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02-737-5533, 내선 112)

###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백혈병 및 혈액질환 환자들은 조혈기능 저하, 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수혈이 꼭 필요합니다. 기부해주신 헌혈증은 지원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인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보내집니다.

헌혈증 기부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02-737-5533, 내선 110)

보내실 곳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5, 905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앞

###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본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실 내용은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 백혈병 등의 환자 투병수기, 조혈모세포 이식 및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교양, 사회교육, 수필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는 우리나라의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택된 수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